

# 옛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으로 재탄생

광주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방치돼 있던 옛 광주시립미술관이 8년 만에 사진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외공원 내에 자리한 팔각정도 리뉴얼 과정을 거쳐 20년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13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하 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각각 1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자리한 옛 광주시립미술관과 중외공원 문화벨트에 있는 팔각정을 리모델링한다.

옛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지는 사진전시관은 광주의 정체성을 간직한 역사적 사진자료를 수집·보존·연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상설 및 기획전시, 광주의 역사를 담은 사진자료 전시 등을 하게 된다.

시립미술관은 올해 옛 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 일부(901㎡)를 우선 리모델링해 내년 초 개관·운영하고, 추후 예산을 마련해 전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전문화된 사진전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사진 자료들을 수집·연구, 전시를 기획할 사진전문 학예연구사도 채용한다는 목표다. 전관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 사진전시관에는 개방형 수장고 등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시립미술관은 과거 필름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등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사진전시관 1차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현재 옛 시립미술관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옛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공원 팔각정

## 1억 4000만원 투입 사진 전문 전시·연구...내년 개관 중외공원 팔각정, 탁트인 '정자' 형태로 시민에 개방

공간을 운영하거나 관리전환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2년 8월 준공한 옛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7년 광주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으로 이전하면서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단 2차례의 대관 전시만이 진행됐다.

시립미술관은 또 3층 규모인 팔각정의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내에 끝내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전체 공간을 완전 개방하는 방안과 일부 공간을 레지던스

나 도예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팔각정은 지난 1981년 8월 중외공원 준공과 함께 만들어졌다. 중외공원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팔각정은 당초 전망대와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1995~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레지던스인 '팔각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쓰였다. 이후에는 방치되면서 개방해달라는 시민들

의 의견이 잇따랐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팔각정은 준공 당시 '정자' 형태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된다. 막혀 있는 벽면들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난간 등 기타 노후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진호 관장은 "지역 문화계에서 광주의 역사를 담은 사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창의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 관련 문화 행사와 전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진전시관이 개관하면 다양한 사진관련 기획전시와 대관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박진현의 문화카데

요즘 부산 시립미술관은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관람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4월 미술관 앞마당에 문을 연 '이우환 공간'때문이다. 개관 이후 평일은 150여 명, 주말은 3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평소보다 2~3배나 방문객이 늘어난 것이다. 2014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지낸 제사가 모건(뉴욕 디아비전 미술관장)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부산시가 47억 원을 들여 건립한 이우환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미술관 별관 격이다. 전체 24점(220억 원 상당)의 소장품 가운데 23점이 이 화백이 기증

이달 초 간송미술관의 운영법인인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상설전시관인 분관을 대구에 짓는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선정에 들어갔다. 지난 2013년부터 간송미술관 분관 유치전에 뛰어난 대구시는 권영진시장과 시의회 의장까지 나선 덕분에 최종지로 '낙점'됐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간송미술관은 1938년 서울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근대식 시립미술관으로 일제 때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한 간송 전형필(1906~62) 선생이 평생 모은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등 국보와 문화재 1000여 점을 보유하

## 이우환과 간송미술관

한 작품들로, 그는 건물 설계에서부터 작품 배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다.

'이우환 공간'이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면서 부산 시민들의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졌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관람할 수 있는 '한동네'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특히 이 화백의 이름을 건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라는 '상품성'은 지역민들에겐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준다.

그도 그럴 것이 경남출신인 이 화백은 일본 모노파(1960년대 일본현대미술운동)의 창시자로 그의 '선으로부터'(1976년 작)는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서 23억 원에 낙찰됐고 한국작가로는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인전(2011년)을 열었다. 지난 2010년 일본 나오히메에 건립된 이우환 미술관은 한해 평균 50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미술관이다.

최근 대구광역시도 새로운 문화 명소의 탄생으로 한껏 들떠 있다.

고 있다. 대구는 간송미술관 분관 유치로 시립미술관과 연계, 명실상부한 미술의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춘 미술관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관광자원이다. 이우환 미술관과 간송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등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우환 공간과 간송미술관 분관을 '놓친 건' 광주엔 빼아픈 대목이다. 사실 광주 시립미술관에는 재일교포 사업가 허정웅 씨가 기증한, 알토란 같은 35점의 이우환 작품이 있다. 하지만, 이젠 '이우환 공간'의 그늘에 가려 '광주만의 컬렉션'으로 전략할 처지다. 이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을 브랜드화하지 않는 광주의 무관심 탓이다. '옥석(玉石)'을 구분 못하는 시의 무인 문화행정 탓이 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김지영·김혜림 씨 '어른 동화구연대회' 우승

김지영씨와 김혜림씨(사)색동화·색동어머니동화구연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로 지난 13일 광산구정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18회 어른 동화구연대회에서 광주시장상과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40여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출신 정유진씨와 일본 출신 이가라시 하루미씨 등 2명의 이주 여성이 참가해 한국인 못지않게 구연

솜씨를 뽐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 시장상 김지영 ▲전남도지사상 김혜림 ▲서구청장상 홍진화·전주희 ▲남구 청장상 이희숙·최순옥 ▲북구청장상 선효봉·정영미 ▲광산구청장상 김경하·김승미 ▲광주교대 총장상 김경비 ▲색동 대상 정하와 ▲색동 금상 이정남 ▲색동 은상 임은진 ▲색동 동상 백현정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조현옥 시인, 세월호 아픔을 시에 담다

시집 '사월의 비가' 출간  
18일 전남대서 북콘서트



88년 결혼과 함께 광주로 내려온 이후, 광주 근육장애인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시 낭송회를 비롯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조현옥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사월의 비가'(한강)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세월호 참사를 주소재로 상실, 아픔, 고뇌에 전착한 20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세월호 이후 멈춰버린 시간을 서정적이며 격정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시들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1부와 2부에는 세월호 관련 시들이 실려 있으며, 3부에는 시인이 활동했던 통일 운동 관련 시들이 담겨 있다.

조 시인은 '항수'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고향 충북 옥천과 동향이다.

한편 조 시인은 92년 '문화공간'에 '님의 침묵'으로 데뷔했으며 지금까지 시집 '무등산 가는 길' '그대를 위한 촛불이 되어'를 펴냈다.

오는 18일(오후 4시) 전남대 융복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의 010-9720-6930.

/박성천기자 skypark@

## 광주시립무용단→시립발레단으로 새출발

시의회 명칭변경 조례 의결

'창극단' 원한 '국극단'은 유보

광주시립무용단(예술감독 신순주)의 명칭이 광주시립발레단으로 변경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40회 정례회에서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 2조 2항 3호중 '무용단'을 '발레단'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무용단은 창단 40여년만에 발레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지난 1976년 창단된 무용단은 초대 단장인 박금자씨가 재임할 때인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발레를 중심으로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등을 무대에 올렸지만 후반부터는 발레를 집중적으로 공연해왔다. 특히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1991년 이후에는 발레 공연만 진행해 왔다.

전국 지자체 무용단 가운데 유일하게

'발레' 특화 단체인데다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3대 직업 발레단'으로 불려온 무용단은 오랫동안 발레단으로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광주시가 무용단이라는 이름 속에 발레라는 장르가 포함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 이름이 갖는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은 점과 이름에서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용단 측은 명칭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편 '창극단'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시립국극단(예술감독 김영옥)의 경우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제외됐다.

1989년 창단된 국극단은 단체 명칭에서 시민들이 단체의 성격을 잘 알 수 없는데다 여성국극을 연상시켜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임 윤진철 예술감독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청해 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 서남권의 중심호텔

##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